



카자흐스탄-캐나다, 소리 없는 종자 전쟁



2016년 중국 국유 화학업체인 캄차이나(Chemchina)의 스위스 농약회사 신젠타(Syngenta) 인수를 시작으로 2017년 미국의 종합 화학업체 다우케미컬(Dow Chemical)과 듀폰(Dupont)의 합병, 2018년 독일의 다국적 화학· 제약 기업인 바이엘(Bayer)의 미국 종자·농약 기업 몬산토(Monsanto) 인수까지 전 세계 종자 산업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카자흐스탄과 캐나다 사이에 일고 있는 종자 이슈가 화제다.

고품질 캐나다 종자 사들이는 카자흐스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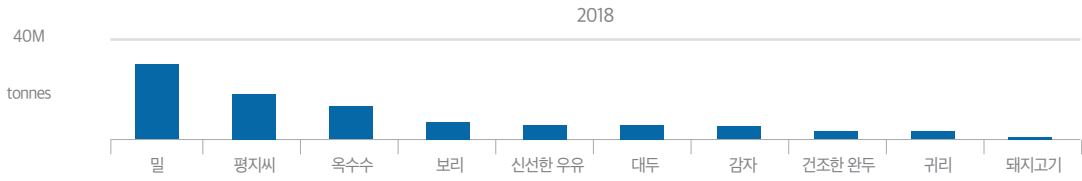
최근 캐나다를 비롯한 온라인 외신(RealAgriculture.com, Manitobacooperator.ca)에 따르면 “일부 카자흐스탄 기업들이 꾸준히 캐나다의 곡물 및 채소 종자를 불법으로 구입하여 카자흐스탄 농업이 성장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구매기업에 대한 정보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캐나다의 대표 종자기업 중 하나인 SeCan 대표에 의하면,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판매거부를 당할 경우, 구매자가 회사명, 연락처 등을 계속 바꾸기 때문에 기업은 정확하게 구매자 리스트를 파악할 수 없으며 이는 어떤 종자를 얼마나 구매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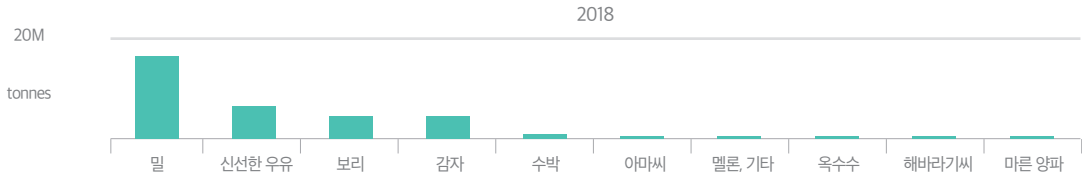
카자흐스탄 - 캐나다 농업에 미치는 영향

캐나다에서 농업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농업 관련 산업의 매출액은 1,200억 원 이상 이를 정도로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다. 특히 고품질 종자 육성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개발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캐나다는 자국산 종자 유출로 생길 수 있는 타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캐나다 10대 생산 작물]



[카자흐스탄 10대 생산 작물]



출처 : FAOSTAT(국제식량농업기구 통계), 2018

현재, 카자흐스탄산 밀이 캐나다산 밀보다 생산성이나 품질 면에서 많이 뒤처짐에 따라 캐나다산 종자로 카자흐스탄의 곡물·채소 품질이 향상될 경우, 캐나다 농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현재 캐나다에서 밀을 헥타르 당 4~5t 생산한다면 카자흐스탄은 헥타르 당 1~1.2t 생산하는 수준일 정도로 생산량에서도 많은 차이가 난다. 품질도 비슷한 상황이다. 캐나다산 밀이 1등급이라면 카자흐스탄산 밀은 3~4등급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2018년 FAO(국제식량농업기구)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와 카자흐스탄의 생산량 1위 작물은 모두 밀이었다. 캐나다는 연간 밀 생산량이 3,177만 톤으로 전 세계 6위의 밀 생산국이었다고 카자흐스탄은 1,394만 톤으로 14위를 차지했다. 향후 종자 산업의 미래에 따라 양국 간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 셈이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캐나다 농업 관계자들

캐나다 농업 관계자들은 캐나다 정부가 현재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고 난색을 표하며 카자흐스탄 기업가들의 정체를 밝혀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이 정식으로 캐나다산 종자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연방정부가 직접 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식량안보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국가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Key Point

한국도 우즈베키스탄 등 CIS 국가에 채소 종자를 수출한다는 뉴스를 종종 접할 수 있다. 종자 산업이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동시에 '무기 없는 전쟁, 종자 전쟁'이라 칭해질 만큼 국가 간 종자 경쟁 속에서 한국도 종자 유출 등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출처 : ① Forbes, 「В Канаде разгорелся скандал из-за поставки ценных сортов семян в Казахстан(20.8.27)」 ② Zakon, 「Канадский экспорт сельхозпродукции встретил не ожидаемых конкурентов из Казахстана(20.8.27)」 ③ FAOSTAT, 「Top 10 Commodities Production in Canada/Kazakhstan(2018)」